



부속
지

2024

BYUCKSAN
MAGAZINE

轉換

전환

CONTENTS

- 4 CEO Letter
- 8 Trend ON
- 12 Byucksan ON
- 14 Change Maker
- 18 Issue & Insight
- 22 Dictionary
- 24 Figures & Fact
- 26 B Mindset
- 28 B Sharing
- 30 Story With
- 34 Story G
- 36 B News
- 38 B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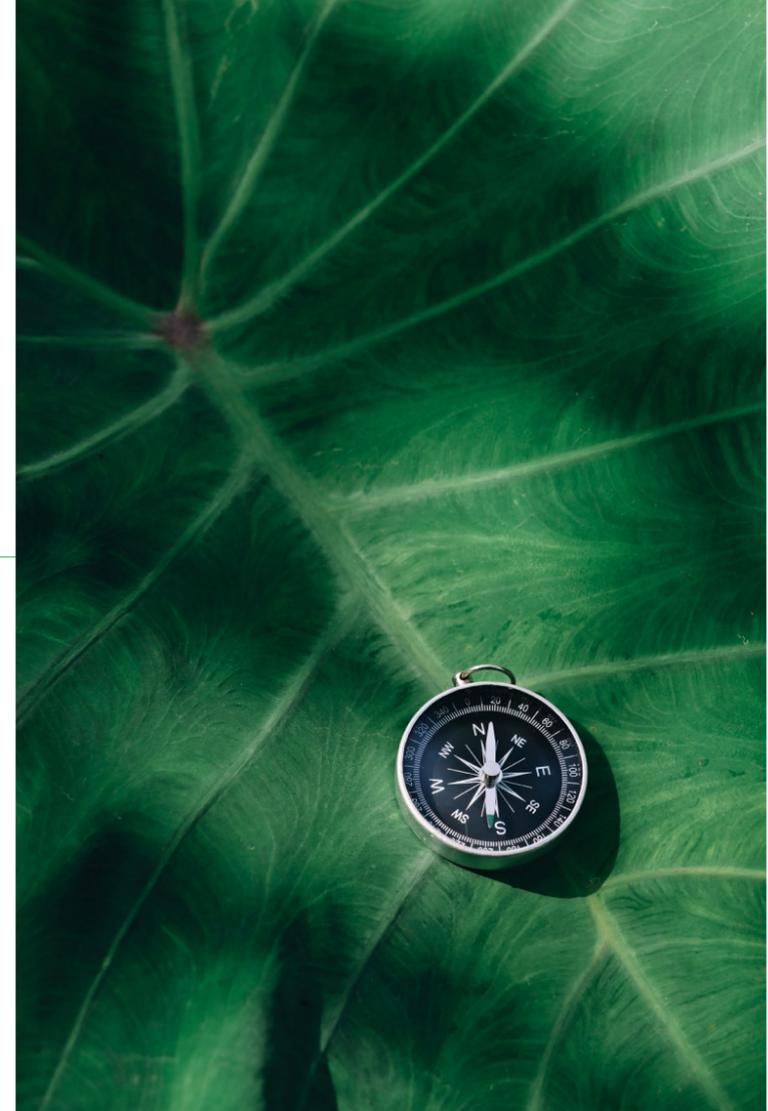
도담터 2024년호

발행 및 편집인 김성식 발행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TEL. 02-2260-6114 www.byucksan.com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담당자 인사혁신팀 김준희 대리 02-2260-6131

기획·디자인 PEOPLE PAGE 02-6674-0111

실린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으로 벽산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모험과 탐험에 나서는 이유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의 발로라고 합니다. 전환의 시대를 마주하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쪽에 비켜서서 변화의 물결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확신을 얻고 싶은 까닭이겠지요. ‘We become what we behold’라는 한 인디 게임의 이름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벽산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 시선을 포개는 마음으로 2024년 <도담터>는 전환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전환의 흐름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그 연장선에서 발견하게 될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轉換

전환의 다양한 양상들

기후의 전환 1850년대의 1차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은 꾸준히 증가하여 어느새 섭씨 2도 이상의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협약이 이루어졌으나, 작금의 현실에서 그 협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세계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는 최근 몇 년 사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정도도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을 동반한 극심한 가뭄을 겪는다면 일 년 치의 강우가 단 몇 시간 만에 퍼붓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시간에 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는 이제 이상 기후라고 할 것도 없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뉴노멀은 기존 식생대의 안정성을 파괴함과 더불어 다양한 식물과 곡물수확량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고, 결국 식량 부족 및 식량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기적인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많은 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 지난 20여 년간, 리먼 사태 및 코로나 이후 급격한 통화의 양적 팽창은 전 세계의 실물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지금은 변화의 방향을 읽고 대응을 준비할 때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기본적인 환경의 조건들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상수들이 변수로 탈바꿈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환경, 지정학적 역학 관계, 노동시장의 가치관 변화, 인공지능(AI)의 도래로 인한 IT 환경의 혁명적 변화 등이 우리 인류가 사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박산, (주)하츠 대표이사 **CEO 김성식**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시켰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매력과 효용성을 현저히 낮추는 반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소득의 효용과 매력을 급 상승하게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출근해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필수 재화로 여겨지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업에 고용되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더 이상 직장인들에게 존재하지 않게 된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의 결과로 부여 받는 재화의 크기가 엄청나게 비싸진 실물자산을 구매하기에 충분하다면, '영혼을 갈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므로 결코 보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에 강조되었던, 농업적 근면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에 대한 충성과 같은 말은 '옛날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근로 인력들 대부분의 가치관은 '받은 만큼만 일하고, 완벽한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몇몇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노동시장, 특히 노동시장에 이제 막 진입한 MZ세대 전반에 자리잡은 노동 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거대 기업부터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노동 윤리의 '대전환'에 적응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AI 출현으로 인한 산업 동력의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보급된 퍼스널 컴퓨터는 인류의 일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IT 산업이라



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보급된 인터넷은 또 한 번, IT 산업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출현입니다. 인간의 뇌의 작용을 모방하여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인간을 뛰어넘는 AI 바둑기사 알파고의 출현을 필두로, 최근에는 간단한 명령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짧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AI의 출현은 앞으로 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기존의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됨은 물론 모든 산업 전반의 일하는 방식과 노동시장의 궤를 바꿀 것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 냉전 시대로의 지정학적 대전환 정치적으로는 독재 국가이면서 광활한 국토 면적과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며, 서방의 민주 진영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던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주의는 지난 30여년간 인류가 누리왔던 평화와 공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하고, 민주 진영과 독재국가들 간의 군사적 대결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2022년 초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엄청난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은 과거 등소평 시대의 '도광양회(韬光養晦)*' 정책을 버리고, '대국굴기(大國崛起)**'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수퍼 파워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야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AI 및 반도체 기술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위기를 느낀 초 강대국 미국은 생산 설비 공급의 제한을 필두로 다방면에 걸쳐 중국 부상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만을 홍콩과 유사하게 복속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대결로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기후 전환 대응 기후 변화의 핵심적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극력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였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태양광, 수소, 풍력, 원자력 등은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에너지원으로, 산업 전반에서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하는 태동

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화석연료 기반에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은 경제성 면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기존의 설비 교체가 요구되는 등 보완해야 하는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에너지원 사용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노동 윤리 및 산업 동력의 전환 대응 인구 감소를 동반한 노동 윤리의 전환은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 규모의 성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노동 시간의 감소는 경제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당 생산성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저부가가치의 일은 새로 출현한 AI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도입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련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획득된 부가가치의 일부는 남아있는 고도의 숙련된 인력에게 충분히 배분하여, 그들의 실질 임금이 주택 구매와 같은 경제 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저숙련 및 저부가가치 창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은 필연적으로 대부분 AI 및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구도의 전환 대응 가장 답이 없어 보이는 영역입니다. 지금 민주 진영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을 열거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등입니다. 모두가 실질적인 정치적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로,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에너지 및 주요 원자재 공급원으로서, 중국은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서 서방 세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글로벌 생태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제조 생태계를 지난 20여년간 구축해 왔습니다. 대국굴기를 표방하며 그 야욕을 드러낸 후, 미국이 소위 말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하였으나, 이내 탈위험화(Derisking)로 선회한 배경도 이러한 경제 생태계의 대체 불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탈위험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불편함에도,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도를 중국의 대체 국가로 쉽게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상태를 생각하면, 공급원으로서의 인도는 아직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

변화의 방향을
바라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진영 국가의 사업 파트너들은 꾸준히 중국의 현재 파트너들을 설득하여 중국 이외의 나라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하고, 그 생산 설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조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 착오적인 경제 및 정치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한 현재 중국 내 시진핑 정권의 위태로움을 감안한다면, 시 주석은 대만 침공이라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여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군사·경제적 피해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미리 중국 이외의 곳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그 타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격하고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인류가 곧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방향을 바라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변화할 상황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축적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 나가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높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존재하는 생태계에 자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늘 주변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90억 명이 아귀다툼하는 지구에서 대전환의 소용돌이가 발생했을 때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그 희생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쟁력이나 국력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며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전술적으로 힘력한다는 정책

** 큰 나라가 힘차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의미

건축자재 분야 패러다임은 지속가능성과 고성능을 향해 흐른다

건축자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분야 중 하나다.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시대적 요건과 다양한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고성능 탑재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다. 실제로 예전에는 콘크리트와 벽돌 같은 전통적인 자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건축자재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전망을 살펴본다.

글 박철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자재 가격 급등이 가져온 큰 폭의 건설 비용 상승

최근 건축자재 시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슈는 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공급망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 지수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는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30% 가까이 올랐다. 주요 건설자재 즉, 금속재와 철근, 철강 그리고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등은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해 최소 20%, 최대 70%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의하면, 자재가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7%로, 지난 3년 동안 공사비 상승을 이끈 절반 이상의 원인은 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비용 상승이 분양가를 높임은 물론, 고금리와 함께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의 수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건설공사 비용이 평균 5%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5~6년 동안 이뤄질 변화가 2~3년 만에 나타난 것으로, 당분간은 수요자와 생산자 모두 고비용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 기술과의 융복합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건축이다. 건축공사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 가능한 재료와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한 건물 설계(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사용,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건설 비용과 지속가능성은 사실 물과 기름 같아서 제대로 융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여러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이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원자재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탄소량을 평가해 수입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Scope1)과 전기, 스팀 등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건설자재, 구매 또는 임대한 자산 등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가치 사슬에 의한 기타 간접배출(Scope3)까지 포함한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비용이 급등한 요인에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선별적인 재료와 특정 자재 공급에 쏠린 데 따른 영향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Scope3 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축물 운영 단계에서 배출되는 '운영 탄소'와 별개로 건축 원자재의 생산, 운송과 건축 시공,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 탄소'의 절감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그간 건축자재는 주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건축자재는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관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트렌드는 건축공사 과정에서의 스마트 기술과의 접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단순 원격조정에서의 생산체계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의 안전과 사고 예방, 효율적인 시공 기술 도입을 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과 모듈러공법 적용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건축공사에 접목되고 있다.

고비용으로 인한 단기 수요 위축 예상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까. 먼저, 높아진 비용으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이미 2022년과 2023년 건축 착공은 감소했다. 특히 2023년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30%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 한국건설신문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건축자재의 역할', 태성호 한양대 ERICA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2024.08.12.) 자료 참고

가 발생한 이래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이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 위축으로 인해 국내 건축자재 공급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다만, 자재 가격 상승 요인은 낮아질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몰고 온 자재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의 불확실성은 완화될 조짐이다. 중기적으로는 좀 더 예측이 가능한 생산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며, 그런 가운데 지속 가능한 건축과 스마트 기술의 접목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건축자재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스마트 기술의 접목에 있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단기에 성과가 나지 않는 소모적인 투자는 지양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에 대한 투자와 수요는 다소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품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성 또한 갖춘 아이템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건설 폐기물 재사용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환경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건설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44.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 중 일부는 순환 골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온

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재사용률 증진을 위해서는 철거 단계에서 분류를 세분화하고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활용 자재의 활용도 강화 및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변화 전망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로의 변화도 중요하다.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단의 온도 변화와 이로 인한 집중 호우, 화재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등급에 대한 상향 평준화와 재해대응시스템 구비 등 건축 분야 내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극단의 강수량에 대응하고자 24년 만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민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건축자재의 성능에 대한 요구는 향후 시장의 변화에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다.

끝으로, 스마트 기술의 융합 가속화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다. 기존의 스마트 기술은 단편적으로 제각기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로봇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 물리적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유지관리 측면, 에너지 절약 등 각각의 체계로 발전해왔다면, 향후 스마트 기술은 융합과 통합이 본격화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 개발과 상품성 강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며,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성과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공사 공정이 단순한 토목공사에서 스마트 기술은 30%의 생산성 향상과 25%의 공사 기간 단축, 25% 공사비용을 단축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얼마나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고 접근 또한 용이한 스마트 기술 위주로 현장에서 도입되는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BIM을 통한 효율적인 자재관리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투입량을 결정하고 복잡한 시공과정에 접목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 개발과 상품성 강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며,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 실증연구센터, 260m×20m 도로공사 실증결과 (2019)

글을 쓴 박철한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2), 건설경기 변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 수요 변화 연구(2023) 등 주로 건설산업 관련 경기와 건설자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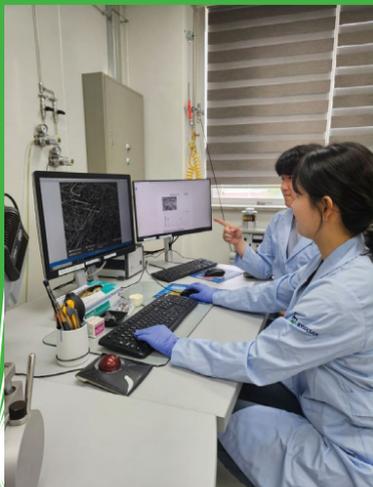


건자재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 소재 및 부품 연구 개발로 Level up!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기술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기술이 산업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전략, 외교전략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탄소중립, 글로벌화 등 최근 직면한 이슈에 대한 대응 및 기술혁신 경쟁력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산업 대전환기 생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기술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기술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글 이제철(벽산 기술연구소 소장)



건축자재 산업의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전환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 산업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자원 소모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강화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건축자재 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벽산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순환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 고효율 단열재**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한 단열 효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안전한 단열재** 제공을 위한 기술적 개선을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폐유리를 원료로 활용해 기존의 유리 원료를 대체하거나,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해 원료로 사용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폐섬유를 회수해 재생산하거나 신규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소재부품 연구역량 확대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기후변화에 맞선 대응 방안으로 건축자재 산업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친환경소재 적용이라는 필수 과제를 안고 있다. 벽산은 기존 건축자재 시장에서의 입지를 넘어 신규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해 미래 소재·부품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샌드위치

패널용 심재 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이차전지용 열관리 소재, 선박·항공 및 우주산업 분야와 같은 첨단 산업에 적합한 소재 및 부품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벽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의 일환이다.

먼저,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친환경화**는 다양한 응용제품 분야로 확대가 가능해 관련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자재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도 가능하다.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우수한 제품 응용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규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 및 우주 산업에서는 경량화와 높은 단열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무게를 줄이면서 온도 변화에도 단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재로 **에어로젤 블랭킷**을 연구하고 있다. 에어로젤 시트 및 블랭킷 제품은 이차전지 산업에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소 조직 구성 및 문화 전환

이러한 연구의 구심점인 벽산 기술연구소는 급변하는 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북 익산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연구소를 확장 이전함에 따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실험 장비를 확충했다. 또한,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총원하고 소재 및 부품 관련 연구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급체계를 개선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간외 업무 지양으로 연구원들의 워라밸에도 신경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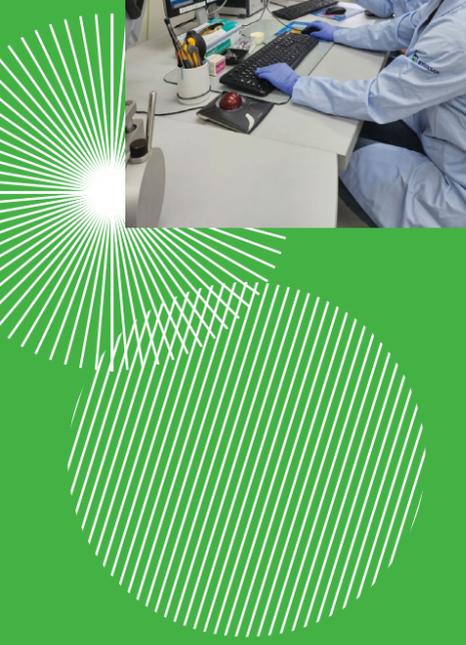
외부적으로는 사내·외 세미나 등을 개최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정보 습득과 더불어 해외 콘퍼런스 및 전시회 등에 참석하며 선진업체 등과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나아가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 과제 운영 프로세스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에 연구소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연구 과제 운영 프로세스를 공장과 영업 등 현업 부서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 채널 운영 및 연구 과제 선정부터 최종 평가까지 협업할 수 있는 협업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연구소 내부적으로 연구관리 운영시스템(R-PMS)을 구축해 모든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업 부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은 벽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

미래의 건축자재 시장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벽산도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의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생산을 지향하고 있으며, 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벽산 기술연구소는 탄소 저감 및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한 소재 및 부품 연구를 통해 건축자재의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벽산 기술연구소는 주요 연구 분야를 건자재 제품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재 및 부품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와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은 벽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연구소의 주요 역할이며, 이번 전환은 벽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전제조건은

‘상품으로의 건축’

성균관대 건축학과

김성아 교수

김성아 교수의 저서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

표지에는 에폭시를 입힌 장미 한 송이가

유일한 오브제로 등장한다.

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성을 포기하고

차가운 이슬 속에 장미를 품’는다는

책의 마지막 문장과 수미상관을 이룬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건축설계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순 있어도

결국 건축은 감동을 주어야 하며, 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한 은유인 셈.

성균관대 건축학과 김성아 교수를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편집실 사진 한상훈

교수님의 저서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 저자 소개는 ‘건축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폭넓은 연구를 해오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간의 연구 활동 먼저 소개해주세요. • 1992년 유학과 더불어 파라메트릭 디자인, 프로토타입 기반의 설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연구에 첫발을 들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대(ETH)에서 설계자동화 연구와 가상공간의 잠재력을 강렬하게 체험했지요. 1993년 WWW의 가능성을 탐구한 최초의 가상 설계 스튜디오(Virtual Design Studio)에 참여해 AI 기반의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와 가상현실 도구를 구현했던 Palladio Virtual Museum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후 박사학위논문은의 주제는 ‘디자인 버전(Design Version)’이었는데요. 건축가가 설계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설계 아이디어를 도출한 순간이나 설계의 중간 결과물을 컴퓨터가 버전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복원해 주는 환경을 다루었지요.

귀국 후 신진교수 시절의 연구는 설계자동화, 지능형 설계시스템, 협업설계(CSCW) 등 시스템 개발과 소프트웨어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요.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U-Eco City)이 집중되던 2000년대는 스마트 가로시설이나 도시 모니터링, 도시정보 분석과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BIM으로 통칭되는 정보모델 중심의 설계자동화 연구의 본격화와 더불어 AI 기술을 적용한 정보모델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설계과정 자체를 정보모델화하고 설계자의 설계 창의성 극대화를 지원하는 환경이 지속해온 주제였다면, 현재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는 건축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축 분야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 생산 또한 고도로 시스템화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통상 디지털이징(Digit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3단계로 설명됩니다. 디지털이징은 데이터의 디지털화로, 국내 건축계의 경우 이 단계는 일찍이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다음인 디지털화는 '도구' 활용 수준에서의 디지털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디지털 전환 또한 여전히 도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도구나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의 변화를 디지털 전환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은 도구가 아니라 '상품으로의 건축물'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디지털 전환의 근본은 가치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문화적인 레벨에서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BI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설계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비롯해 전반적인 변화라는 미션을 완료했을 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최근까지 한국BIM학회를 이끈 전임 회장으로서 건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BIM의 올바른 활용과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세요. • 강조하건대, 설계의 완성은 디테일이지, 스케치나 도면 자체가 아닙니다. 디테일을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건축가의 심상에 존재하는 건축물과 동일한 가상의 건축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도면은 그 완성도를 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BIM은 이 가상의 건축물을 표현하는 언어일 뿐, 도면 자체는 아니에요. BIM의 3D 또한 표현의 일환이지 그 자체는 아니지요.

BIM은 건축가의 이상을 가상건물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천의 무봉(天衣無縫)의 기술처럼 포장되곤 하지만, BIM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기계입니다. 모델에 건축 부재(付財)의 의미(Semantics)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정보 교환과 트랜잭션(Transaction)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얻는 것도 많은데, 사용자와 더욱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엔지니어의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공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가령, 대지에 흐르는 바람과 소음을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은 건축가에게 시간을 초월하게 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간의 품질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BIM 기술은 바라보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장소의 기억과 미래를 예

측하는 사용자 중심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 건축과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이미 물리적 공간이라는 전제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건축 공간은 가상과 물리의 경계가 없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띠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인간의 일상도 사뭇 달라지겠지요. 이미 적잖은 이들은 무한히 증식된 가상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잖은 정보를 소셜미디어나 단톡방, 혹은 유튜브 세상에서 얻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존재는 분할되고 변형되어 다양한 공간에 동시 존재하고 있으며, 의식의 파편들은 다양한 캐릭터로 데이터 세계에서 이 순간에도 활약 중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필수적인 물리 공간을 제외하고는 무한 증식하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건축의 기능이 확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는 어쩌면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리적 세계의 옷차림이나 장신구 못지않게 가상 세계의 아이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테고요. 글자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신발, 옷 등을 비롯해 가상 세계를 겨냥한 다양한 제품들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자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감탄은 할 수 있을 지언정 감동하긴 어렵지요. 감동에는 스토리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건축가를 예로 들면, 아무리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꿈을 들어주고 스토리를 입히는 건 인간 건축가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건축설계의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고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인간 건축가가 유일하지요.

다만, 건축물이 기후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생산체계의 생태계에 서식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생산자를 벗어나 전략가로 변신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틱스와 가상 현실 기술은 모두 건축이 당면한 새로운 재료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합해 혁신적인 건축 유형을 개발하고 유의미한 건축환경을 선도하려면 다학제적 전략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학제적 협업을 조율해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를 이끌며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략가로서, 기존 '건축과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휴대폰을 예로 들면, 초창기만 해도 전화기에 일부 컴퓨터 기능을 삽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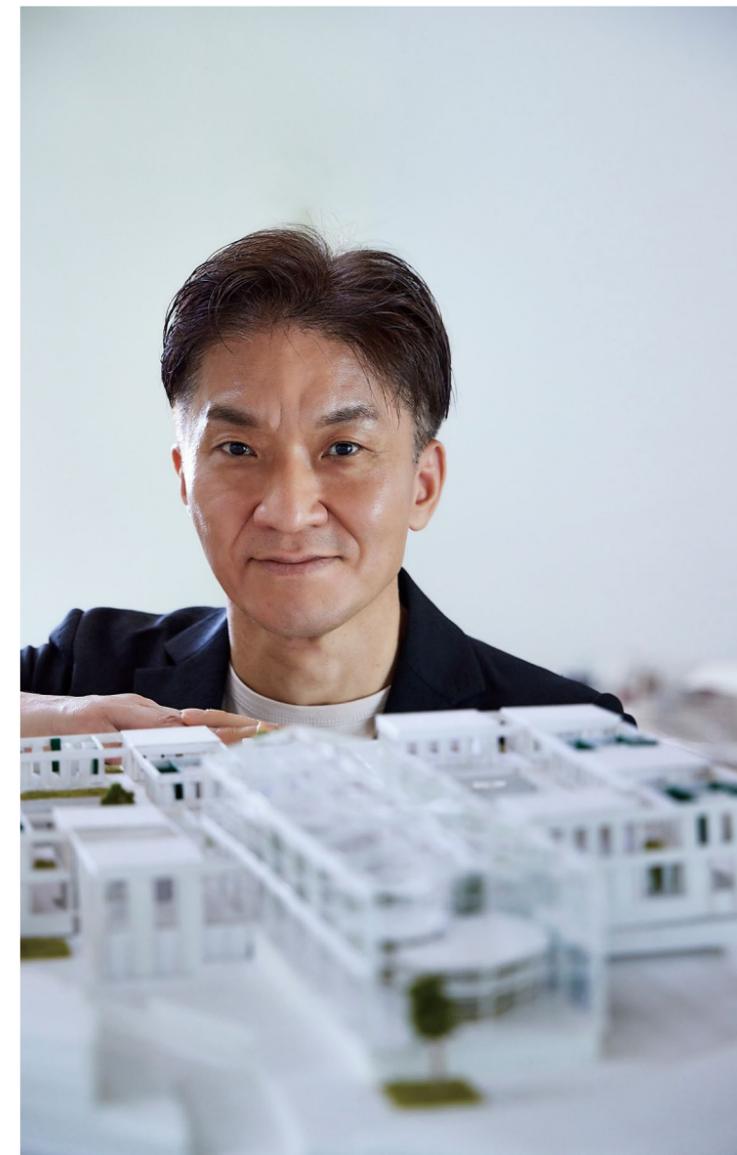
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에 가깝지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자동차는 자동차 기능을 갖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의 요즘 관심사이자 주력 연구 분야는 집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에도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는 과거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IT기술이 여기저기 숨어있습니다. 일종의 로보틱스인 엘리베이터는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마술이다' 외치며 경악했지만, 지금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상상할 수 없지요. 와이파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스마트하다고 말하진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건물도 결국 같은 흐름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폰이 OS를 바꾸거나 앱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하듯, 소프트웨어화한 집도 공간의 기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담은 OS를 통해 원하는 쓰임새에 따라 공간의 조도와 벽면의 투명도 등을 바꾸며 공간을 재설정하는 것이지요. 이미 카시타(Kasita) 같은 미국의 스타트업이 이 같은 집을 선보인 바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하우징(Software Defined Housing)'은 제가 새롭게 설정한 개념으로, 재작년부터 연구재단 중견 과제로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상품성을 갖춘다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에어컨, 조명 등 건축자재 시장까지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기술로 대체되어도 감동은 오직 사람의 영역이라는 김성이 교수는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제6대 한국BIM학회 회장을 지냈다. 오랜 기간 디지털 기술과 건축설계의 융복합에 관해 연구해오면서 다루었던 기술적인 주제들을 인문학 교양처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씨아이알)을 펴냈다. 건축 외에 전쟁사와 인문 지리, 언어, 영화, 음악 등에도 관심이 많다.

요즘의 주된 연구 분야는 집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로, 앞으로는 집에도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2024 파리올림픽. 지속 가능한 올림픽 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2024 파리올림픽은 경기 외에도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완전히 개방된 올림픽(Games Wide Open)’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올림픽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개막식을 진행했으며, ‘성평등’ 올림픽을 표방한 만큼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선수 각각 5,250명씩 출전했다. 무엇보다 IOC의 탄소제로 목표와 ‘저비용 친환경’ 기조에 따라 최대한 ‘덜 짓는’ 것을 목표로 한 첫 올림픽으로, 올림픽 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신기록을 남겼다.

글 편집실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린 상트마르스 아레나.



IOC, 기후 친화적인 올림픽 대회 개최 선언

2022년 스위스 로잔대 연구팀의 논문 ‘올림픽과 월드컵의 구조적 적자’에 의하면, 1964년부터 2018년 사이 열린 올림픽(하계, 동계 포함)과 월드컵 43회의 총비용은 1,200억 달러(한화 약 166조 5,000억 원) 규모였으나, 이익은 700억 달러(약 97조 1,000억 원)에 그쳤다.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짓는 경우가 많은 하계올림픽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막대한 비용을 들였으나 막상 처치 곤란한 투자나 물건을 가리키는 ‘하얀 코끼리’들이 올림픽 뒤에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적잖은 까닭이다. 실제로 베이징올림픽(2008) 주 경기장이었던 ‘새 둥지’ 경기장은 건설비로 4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된 이후 매해 유지관리비로 1,000만 달러가 들어가는 실정이다. 아테네올림픽(2004) 때 지은 시설은 거의 모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며, 몬트리올올림픽(1976)의 주 경기장은 최근 지붕 교체에만 8억 7,000만 달러 지출이 예상되자 철거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비단 경제적인 적자뿐 아니라 자원 낭비, 건축 쓰레기 양산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2020 어젠다에서 ‘지속가능성’을 4번째 권고 사항으로 설정하고, 최소 2030년까지는 기후 친화적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인 2024 파리 올림픽은 역대 최초로 탄소배출량을 이전 대비 50% 줄이는 것으로 삼았다.

경기장의 95%는 기존 시설 활용

실제로 올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경기장 운영 방식이었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새롭게 건설한 경기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 IOC의 탄소제로 목표와 ‘저비용 친환경’ 기조에 따라 최대한 ‘덜 짓는’ 것을 목표로, 경기장의 95%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것이다. 또, 새로 지은 경기장과 시설은 대회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덕분에 전 세계 올림픽 시청자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동시에 파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는 호사를 누렸다.

먼저, 그랑 팔레(Grand Palais)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 획득 종목인 펜싱과 태권도 경기장으로 변신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를 위해 지어진 그랑 팔레는 당시 장엄한 본당과 유리 지붕으로 건축미를 뽐내며 전 세계를 주목하게 했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는 올림픽 이후 공공 용도의 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물의 내부 공간을 연결해 임시 경기장을 만드는 한편, 화려한 발코니를 복원해 관중석을 만들어 개방감과 웅장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라 데팡스 아레나(Paris La Défense Arena)는 2017년에 개관한 다목적 건축물로, 개관 이후 공연, 컨벤션 및 세미나, 프로 럭비 경기장 등 다양하게 쓰이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수영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1. 1900년 파리엑스포를 위해 지어진 그랑 팔레는 펜싱과 태권도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2. 1687년 군 병원으로 지어진 앵발리드는 파리올림픽에서 양궁과 육상, 사이클 경기장으로 변신했다.
3. 승마 경기가 펼쳐졌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베르사유 궁전 정원
4. 파리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인 샹트르 아쿠아티크



경기장 배경으로 등장한 파리의 문화유산

파리의 오랜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도 올림픽 경기장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중 양궁과 육상, 사이클 경기가 펼쳐진 앵발리드(Invalides)는 1687년 루이 14세 시대 참전 용사를 위한 군 병원이었다. 현재 프랑스 군사역사박물관인 이곳은 중계해설에도 자주 나왔듯 나폴레옹을 비롯해 파리의 위인들을 추모하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런 만큼 올림픽 경기장은 건축물 내부가 아닌 전면부 공공공간을 활용해 조성되었는데, 건물 앞 차도와 광장을 활용해 각각 경기장과 관람석을 임시로 설치했다.

에펠탑 앞 잔디밭으로 잘 알려진 샹 드 마르스(Champ de Mars)와 프랑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도 임시 경기장을 마련해 각각 비치발리볼과 근대 5종, 승마 경기가 펼쳐졌다. 이들 임시 경기장은 모두 계획 단계부터 철거 후 건축자재를 100%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축 대신 보수와 수리 개선으로 접근

한편, 2024 파리올림픽은 ‘나무 올림픽’이기도 했다. 탄소 흡수원인 숲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절한 간벌과 벌채 등으로 생산한 목재를 신축 건물의 주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파리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인 샹트르 아쿠아티크(Le Centre Aquatique)는 50%는 나무로,

나머지 50%는 기존 재활용품들을 사용해 시공했다.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5,000㎡를 설치해 필요한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버려진 나무와 플라스틱을 가구나 인테리어 요소로 재탄생시켰다. 파리올림픽에서 아티스틱 스위밍, 수구, 다이빙 경기를 치른 이 경기장은 이후 지역사회를 위한 수영 수업 및 레저 시설로 활용되며 공공성 추구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신축 경기장인 아디다스 아레나(Adidas Arena)는 1만 1,000여 석에 이르는 관중석을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 경기장의 전기도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만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풍력과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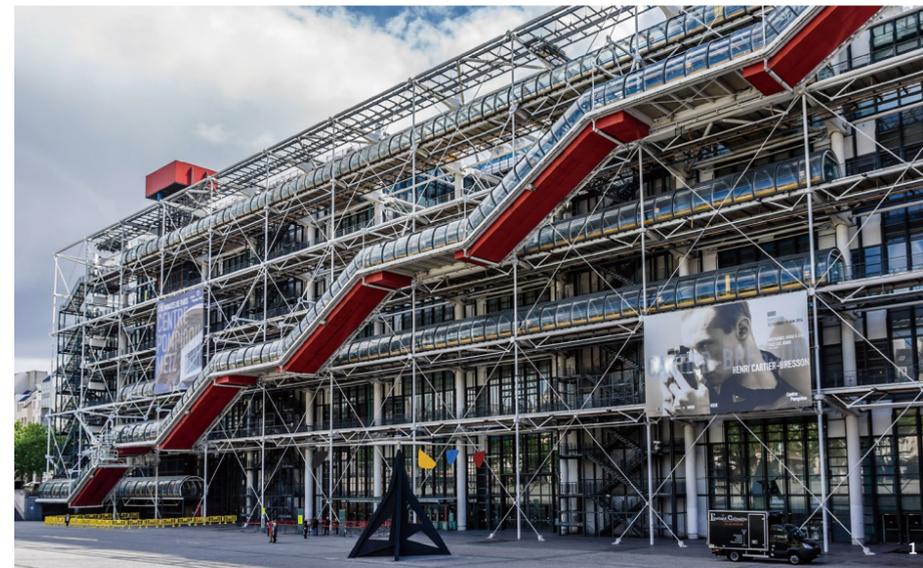
경기장 외에 올림픽 선수촌 또한 8층 미만의 모든 건물이 목재와 유리를 주 소재로 했다. 히트펌프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친환경 단지로 구성된 선수촌은 올림픽 이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오피스 등 수요에 따라 구조 변경이 쉽도록 격자형으로 지어졌다.

이처럼 2024 파리올림픽은 신축 대신 기존 자원의 보수와 수리, 개선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친환경으로의 전환과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올림픽 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건축물로 미리 만나는 미래, 하이테크 건축

홍콩상하이은행 본사, 파리 퐁피두센터, 미국 애플파크 등은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하이테크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것.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하이테크 건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1. 파리 퐁피두센터 2. 미국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
3. 홍콩상하이은행 본사 4. 영국 블룸버그 본사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의 만남

하이테크는 ‘하이테크놀로지(Hi-technology)’의 축약어로 고도의 과학을 첨단 제품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 형태를 통틀어 말한다. 이는 미술, 패션, 영상, 음악,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성과 실험성을 선보였다. 건축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대건축에서 하이테크 건축은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을 계승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건축 구조와 디자인에 적용한 건축양식을 일컫는다. 하이테크 건축은 1970년대 중반 과학기술과 관련된 첨단 분야에서 공법의 다양화를 반영하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건축 분야의 혁신과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써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소재, 최첨단 기술과 미래적인 미학을 통합한 건축 디자인으로 기존 건축계의 통념을 뒤흔들었다. 기능성에 초점을 두되 단순히 기능성에만 발목 잡히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기술과 소재를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등 상상력을 확장하며 현대건축의 가능성을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이테크 건축의 두 거장

이처럼 기술을 건물의 형태와 기능에 통합하는 디자인 스타일로 ‘구조적 표현주의’로도 불린 하이테크 건축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이며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하이테크 건축의 대표 건축가로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를 들 수 있다. 독특한 구조와 투명한 유리 파사드를 시그니처 삼은 그는 파리 퐁피두센터, 런던 셰어드 빌딩, 뉴욕타임즈빌딩 등을 설계했다. 우리나라 KT 광화문빌딩 East 설계도 그의 작품이다. 이 중에서도 1977년에 개관한 파리 퐁피두센터는 파리 중심부에 소재한 복합문화시설로, 강렬한 색의 파이프와 외부로 드러난 설비구조 디자인을 통해 당시 건축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하이테크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로는 영국의 노먼 포스터(Norman Robert Foster)도 빼놓을 수 없다. 노먼 포스터는 철과 유리, 기계적 설비 노출, 알루미늄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 최첨단 기술과 실험적 디자인의 접목을 시도했다. 또, 설비와 전자 시스템을 포함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자의 쾌적함을 높이는 친환경적이며 기능적인 건축을 추구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프리츠 커상(1999)을 비롯해 다수의 건축상을 휩쓴 그는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와 홍콩상하이은행, 영국 블룸버그 본사 등을 설계했다. 국내 건축물 설계에도 다수 참여했는데, 명동 애플스토어, 대전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판교 테크노플렉스 등이 그의 작품이다.

하이테크, 현대건축의 가능성 확장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하이테크 건축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테크 건축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축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 스마트 건축시스템으로 편리함을 향상하는 기술 등을 통해 현대건축에도 목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래 도시의 건축물을 현실로 실현하고,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의 만남으로 건축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한층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여전히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숫자에 담긴 기후 위기의 심각한 경고



GLOBAL WARMING

기상청이 올 6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9.9%는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까. 상징적인 숫자와 그 이면에 담긴 사실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적 현실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15.08°C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지구

2024년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이 유독 오래 지속되었던 올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7월의 지구 표면온도 평균은 17.01도로 175년 지구 기상 관측 역사 이래 가장 더운 7월이었다. 20세기 평균 온도인 15.8도보다 1.21도 높은 수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지구 표면온도의 평균 또한 20세기 평균(13.8도)보다 1.28도 높은 15.08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산하의 국립환경정보센터(NCEI)는 77%의 확률로 올해를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측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의 마지노선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5도.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시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며,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시 1.5도가 인류 생존 및 생태계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한계선이 되었다. 하지만 올 7월의 평균기온은 이미 2.01도나 높았다.

2,300,000t

바다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171조 개에 달하며, 총무게는 약 230만 톤으로 추산되는 등 해양이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과학자팀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등 1만 2,000여 개 지점을 대상으로 1979년과 2019년 사이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해양 오염 관련한 긴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약 2.6배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수십 년간 급증했다. 이 중 매년 약 9%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이후 플라스틱은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미세 플라스틱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나 바닷물에 흡수된다. 이는 나아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결국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인류가 매년 줄여야 하는 탄소배출량



1,400,000,000t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추진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인류가 매년 줄여야 하는 탄소배출량은 14억 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로, 1인당 배출량은 세계 3위다.

9,300,000ha

한 해 동안 화재로 사라진 숲의 면적

전 세계 숲, 산림 조사·분석 기관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불로 인해 사라진 삼림 면적은 930만 헥타르에 달한다. 1분당 약 16개 축구장 규모의 나무가 사라진 셈. 이는 20년 전과 비교해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 전문가들은 최근 6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브라질 아마존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삼림 벌채가 숲을 더 뜨겁고 건조하게 만들며 화재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한다.



68%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사라진

척추동물의 비중

인간의 무분별한 동물 서식지 파괴와 남획 등으로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지구상의 척추동물 개체 수는 70% 가까이 급감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동물원이 2020년에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는 4,000여 종의 척추동물을 추적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46년간 포유류와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 지구상의 척추동물 수는 68% 급감했다. 중남미 열대지역에서는 무려 척추동물의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도입된 개인용 PC,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급된 인터넷,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해 빠르게 확산한 스마트폰은 각기 다른 기능을 앞세워 기존 업무환경에 상당한 파장과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또한 그 연장선에 있지만 변화의 폭과 깊이는 한층 더 진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 디지털 '변화'가 아닌 디지털 '전환'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디지털이라고 하면 IT기업이나 스타트업 정도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잖다. DX에서 의미하는 디지털은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또 기업의 업력과 형태를 떠나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흐름이다. DX를 특정 산업과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기술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DX는 이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 혹은 문화가 된 것이다.

'BYOAI(Bring Your Own AI)' 현상의 보편화

세계적인 변화 컨설턴트인 더글라스 K. 스미스(Douglas K. Smith)에 따르면, 사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 변화가 자신에게 경제적·사회적 위협으로 여겨진다면 두려움, 불안감과 더불어 거부하는 저항을 보인다고 말한다. 대신, '변화의 필연성'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 태도가 급변하게 되는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행동'으로, '행동'은 곧 '학습하려는 의지'로 바뀐다는 것이다. 즉, '신념-행동-현실화 변화 프레임'이 작동한다는 것으로, 신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DX에 맞서는 개개인의 전략에서도 응용해볼 만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Work Trend Index 2024>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AI)을 선두에 세운 DX는 이미 채용과 인력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일하는 3만 1,000명의 지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5%는 이미 업무에 AI를 사용 중이다. 이들 중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AI 도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무려 78%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의 지원과 상관없이 기꺼이 비용을 감당하며 AI를 익힐 의향이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BYOAI(Bring Your Own AI)' 현상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현실 각자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DX 흐름에 성공적으로 탑승하려면 다음 단계인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각자의 포지



**전환의 시대,
변화에 대한
강요가 아닌 '공감'으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이룬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디지털 기술과 도구만 도입하다 보니 업무 효율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업무만 가중된 경우도 적잖다는 것.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하고 필연적인 흐름에 영리하게 올라타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글 편집실

션에 따라 대응 강도는 달라진다. 가령, 디지털과 초밀착된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라면 알고리즘과 딥러닝 등 좀 더 심도 있는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아니지만 각 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이들을 뜻하는 디지털 융합 인재라면 몸담은 산업 분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까지는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인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환경에 좀 더 민감하게 적응하고 활동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부터 익히는 게 좋다.

강요가 아닌 공감에 방점을 둔 조직의 변화

DX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 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모든 구성원과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DX는 특정 개인이나 디지털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부서 간 변화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조직문화(Digital Culture)를 구축해야 기업이 추구하는 진정한 DX가 가능해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디지털 조직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기술과 프로세스 측면에서 새로운 업무방식에 대한 적응과 추가적인 학습을 요구받으므로,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 디지털 업무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더 많은 자율권과 의사결정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향상된 업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는 자칫 디지털 세대 속 개인의 소외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조직 구성원들의 현재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디지털 업무환경에서 조직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설계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과 솔루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DX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열려있는 시각과 더불어 DX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시험의 시간과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강요'보다는 '공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전문성이 우수한 최고디지털책임자(CDO)를 영입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도 '사람'을 간과한 조직의 DX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 디지털 문해력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안정화하고 적절하게 탐색하며, 관리·이해·통합·소통·평가·창조할 수 있는 능력

DX는 특정 개인이나
디지털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부서 간
변화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향한 벽산의 따뜻한 행동

벽산은 제품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과 함께 우리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행동 또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을 북돋는다면 새로운 출발점에 선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아름다운 선율로 지역사회와 화음을 쌓았으며,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정을 위해 카니발을 제공했다.

글 편집실



이화여대 늘봄사업단과 MOU 체결

벽산은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아이들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12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과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난연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결합한 협업 프로그램 '우리 동네 힐링 아티스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협정을 통해 벽산과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은 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함께 지원하면서 아이소핑크를 직접 활용한 공동 작업을 진행, 아이들에게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건축자재라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재료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또래와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공감력을 높이고 미술치료사와 연계해 창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아이소핑크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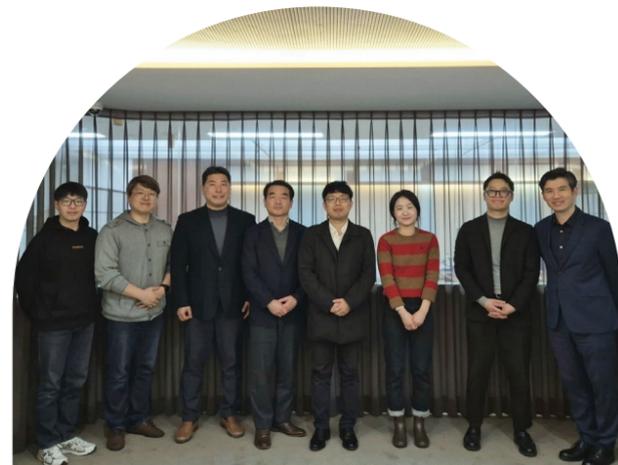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내외벽 및 옥상 단열이나 스포츠센터 바닥, 냉동창고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벽산의 아이소핑크는 우수한 단열 효과와 다양한 압축 강도를 자랑하는 제품이다. 특히, 다른 단열재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과 더불어 내부식성, 내습, 내수성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국내 XPS단열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후원 협약 진행

벽산은 최근 친환경 및 장애인 관련 스타트업 3개 사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함께 성장시키기 위한 연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단법인 심센터와 스타트업 후원을 시작한 벽산은 2024년 심센터에서 굿이스트 펠로우십 과정으로 선정된 친환경 및 장애인 관련 스타트업 3개 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움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위해 멘토링 및 후원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벽산은 무인리필스테이션 지구자판기를 통해 친환경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사라나지구를 비롯해 장애인을 위한 OTA 플랫폼 노크노크를 운영하는 베이명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교육 및 서비스 플랫폼 유니마인드랩 등 3개 스타트업과 후원 협약을 맺었다.

벽산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재단법인 심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 영역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한여름밤의 바로크’ 작은 연주회 개최

벽산은 서울 망원동 지온(ZION)에서 ‘한여름밤의 바로크’라는 이름으로 작은 연주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2022년 여름에 이은 두 번째 이벤트로,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 비올라 3중주로 ‘울림과피침’ 대표인 김은식 바이올리니스트와 서울 바로크 앙상블 창단 단원인 문정희 비올라네 그리고 바흐 솔리스트서울에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활동 중인 아렌트 호로스펠트가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한 지온(ZION)이 조금씩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더 가깝게 호흡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온(ZION)은 벽산이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자 지은 건축물로, 지난 2021년 7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 면적 720㎡ 규모로 준공했다. 벽산은 지온(ZION) 기획 단계부터 MZ세대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 타입 및 라운지를 개발하는 한편 상업 시설의 경우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자녀 출산 직원에 카니발 지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계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이 도입되는 가운데, 벽산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신설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전액 회사 부담으로 카니발 차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하며 첫 번째 수혜자가 된 직원에게 축하 이벤트와 함께 카니발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벽산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극복 및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벽산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외에도 출산경조금, 난임치료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해왔다. 또한, 주택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제도 운영,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공장 근로자 사택 지원, 본인 대학원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휴가비 지원, 하계 휴양소 지원, 매년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장생활은 변화의 연속이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좀 더 현명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벽산 근로자 심리지원 프로그램(EAP) '마음심'의
양혁주 실장과 최현락 코치의 조언을 전한다.

마음의 심폐소생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 필요하듯 마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심폐소생술이 마비된 심장에 (타인이) 압박을 가해 혈액과 호흡을 순환시켜 뇌에 산소를 공급해 응급처치하듯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은 마비된 감정과 정신에 스스로 압박을 주어 막힌 마음이 순환하도록 돕는 자가응급처치다. 심폐소생술에 ABC(Airway-기도확보, Breath-호흡, Chest compression-심장 압박)가 있듯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에도 ABC(Awareness-알아차림, Balance-균형, Connection-연결)가 있다.

알아차림(Awareness) - 감정과 마음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표의문자인 한자를 보면 마음에 관한 지혜를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 심장, 가슴'을 뜻하는 한자는 '마음 심(心)'이다. 그리고 '망하다, 달아나다, 죽다'라는 뜻의 한자는 '망할 망(亡)'이다. 이 두 한자를 통해 마음이 언제 망가지게 되고 마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마음은 언제 망가지게 될까? '마음 심(心)'자 오른쪽에 망할 망(亡)자를 붙여 놓으면 '바쁠 망(忙)'자가 된다. 망(忙)에는 '바쁘다'라는 뜻 외에도 '겨를이 없다, 조급하다, 마음이 조급해지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마음은 이처럼 마음의 속도가 빨라져 겨를이 없고 조급해지고 삶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될 때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럼, 마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망가지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마음 심(心)'자 위에 '망할 망(亡)'자를 올려놓게 되면 '잊을 망(忘)'자가 된다. 망(忘)에는 '잊다'라는 뜻 외에도 '건망증, 다하다,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다.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잊게 되고, 중요한 것로부터 달아나게 되고, 결국엔 마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분주한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마음은 망할 망(亡)자의 지배를 받아 생명의 기운을 잃어 가게 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균형(Balance) - 일과 쉬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부자이자 열정적으로 일하는 기업가다. 그는 시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1분 1초가 특별한 그에게는 업무와 생활에서 꼭 지키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루 7시간 수면'이다. 그 역시 처음에는 밤을 새우며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과 생산성에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는 "충분히 자지 않으면 결코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7시간 수면, 수면 전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금지,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 조성 등 수면 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일과 쉬가 균형 잡혀야 있어야 한다. 제대로 일하려면 반드시 쉬가 필요하다. 일에 필요한 힘은 쉴 때 모인다.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엔진 오일이 바닥난 자동차와 같다. 잠시 달릴 수 있겠지만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결국 멈춰 서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몸과 마음은 조금씩 망가지게 된다. 쉬는 몸과 마음에 기름을 칠하는 과정이다. 잠시 멈춰서 조금씩 채워주면 된다. 몸과 마음의 상태는 일과 쉬 사이의 균형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이므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살피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결(Connection) - 존재와 존재

정신과 의사 정혜신은 <당신이 옳다>라는 저서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라면,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물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라면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나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주목하며 공감해주는 '한 사람'은 본인 의도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다.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마음의 심폐소생술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자신의 감정과 정신을 알아차리고,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마음에 주목해주는 사람과 연결될 때 내면의 평화를 찾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양혁주 실장



변화를 선도하는 '기세'

변화란 당연하다. 문제는 속도와 크기다. 대전환 시대에 맞이한 변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폭넓다. 생명체는 크고 작은 변화에는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따라잡기 버거운 변화도 있다. 개인이 대전환 시대에 홀로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변화는 발전과 퇴보, 두 방향으로 간다. 양단간에 그 무엇이든 혼란이 야기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 속에서 한 걸음 내디디려면 위치 파악이 우선이다. "어디에 있는가?" 심오한 질문이다. 물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으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하고 물어야 한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면 길을 잃는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해매는 사람은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된다. 낮은 장소에 가면 불안한 이유다. 파악되지 않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 신체 감각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감정 대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

뇌는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 위기 상황에서 편도체는 공격·회피 반응을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 장은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 넣은 후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심장은 빨리 뛰며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근육을 팽창시켜 싸울지 도망갈지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 우리 몸은 이처럼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과 변화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크기다. 성급하게 편도체에 반응해서 결정하면 일을 그르친다. 편도체는 개인 생존에는 최적화되어 있으나 집단 시스템과 맞물리면 오류를 일으킨다. 잘못된 신호를 감지하고 울려대는 화재경보 시스템과 같다. 시도 때도 없이 화재경보가 울리면 선을 끊어 놓는 경우가 있다. 소리가 날 때마다 확인하기 귀찮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불안, 분노, 우울 등 감정 신호가 날 때마다 확인하고 대처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일하는 중에는 이런 시스템을 꺼버린다. 경보가 알아챈 연기는 담배 연기일 수도 있으나 실제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일 수도 있다. 귀찮다고 꺼버린 경보로 인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 상황은 매일반이다.

속도는 느리게, 크기는 작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없애기보다는 풀어야 한다. 속도는 느리게 크기는 작게 조절하면 된다. 옛말에 그른 말이 없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대전환은 호랑이다. 우리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든 업혀 가든 변화가 일으킨 바람에 올라탔다. 한숨 돌리고 문제를 바라보자. 분명 문제가 달라 보일 것이다. 심장 박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으나 호흡은 가능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한 템포 늦추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심장 박동이 늦춰지면서 근육은 이완된다. 이제 편도체는 비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런 형편에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가능성이 안 되는 문제를 싹싹 싹 과감하게 잘라 보자. 내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게 자르고 동료들과 문제를 나누자. 현장에는 암묵지가 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 해법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에게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암묵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표현된 형태가 바로 형식지다.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다. 무엇인지 모를 때는 두렵다. 캄캄한 밤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숲속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베테랑 가이드가 있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헤쳐온 팀원들과 함께라면 안심하고 숲을 거닐며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환 시대를 관통하여 모험에 나서려면 핵심가치가 선명한 팀을 꾸려야 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핵심가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 역할을 한다. 우리가 진북을 알 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모험을 마칠 수 있다. 이런 팀이야말로 변화를 선도하는 기세 좋은 팀이다.

최현락 코치



Mini Interview

간략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20년 차 코치 최현락입니다. 상담과 리더십 관련해 1010코칭상담센터 초대 센터장에 이어,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상담 및 리더십센터를 총괄했습니다. 코칭 및 경영 영역에서는 여러 기업의 조직 컨설팅 및 경영을 도왔으며, 2021년부터 SK T1 LCK팀과 챌린저스팀 멘탈 코칭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러빙헨즈 퍼실리테이션연구소 소장과 포힘 컨설팅 코치로 활동 중입니다.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입니다. 기본 감정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상황에서 감정은 무엇보다 재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유발합니다. 변화는 어느 때나 있었으나 2024년에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그 속도가 너무도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변화와 자극은 생존에 있어서 강한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알아차리기 힘든 변화에 교감신경계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이 생존에 보탬이 되는 감정들이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 건강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나요?

변화는 안정된 기반을 흔들니다. 새로 맡겨진 일과 새롭게 맺어야 하는 관계에 적응하려면 에너지가 듭니다. 심리적 가용자원이 떨어질 때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긴장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될 때 겪는 어려움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팀의 핵심가치가 선명하고 규율이 명확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려면 선택과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핵심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알아채는 신호나 현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감각이 무뎈집니다. 일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 보니 책상에 부딪혔던가 종이에 베어서 작은 상처가 나 있는 경험 한 번쯤 했을 텐데요. 신체 감각이 무뎈지면 상처 치료가 늦어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처를 내버려 두면 결국 덧나고 굶아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는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고통이 신호입니다. 원인도 분명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는 고통에 무뎈져서 원래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조차 잊습니다. 이런 경우 몸이 버틸 만큼 버티다가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잊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 갑갑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 등이 일어난다면 일종의 신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내가 안 멈추니 멈추라고 내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나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옛말에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나마 도움을 받습니다.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은 끈기 있고 등직해 보이는 일면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초기에 발견하면 해결하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리가 없더라도 상담을 받으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 조언을 건네자면 일상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 삶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에너지가 떨어지니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미루기 십상입니다. 일어나면 이불부터 정리하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내 생활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전문적인 상담가들은 '행동 관찰'이라는 걸 합니다. 때론 심리 검사보다 행동 관찰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점검을 통해 어떤 면에서 내 생활의 리듬이 깨져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인을 위해 마음심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원을 갖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에너지 등은 고갈되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지요. 쉽게 말해 저장 창고에 일정량이 보관되어 있어야 해서 그 안에 든 에너지를 쓰고 나면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저장 창고 크기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심 프로그램은 심리적 에너지를 갈아먹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정서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양한 상담 및 멘탈 코칭 기법을 통해 일상과 업무 상황에서 스트레스 대처법과 멘탈 코칭 기법을 연마하게 됩니다.

* 마음심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은 '스트레스 검사(진단) → 상담 & 코칭 → 치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담사와 직원 간의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며,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상담 전화: 02-2260-5691, 5692

함께, 신중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도움을 구하며

글 박태양 목사



신학의 카테고리 가운데 '선교학(Missiology)'이라는 분야가 있다. 이 선교학에서 가르치는 핵심 주제 중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즉,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공간적, 사회적 상황(Context)에 맞추어 전달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상황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전하는 기독교 메시지가 제대로 어필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쉽게 말해서, 일요일에 반드시 일터에 나가야 하는 직업들-예를 들어, 주말 당직 소방관이나 병원 응급실 담당 의료인-에게 오직 일요일(주일) 예배만이 예배고 다른 요일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치우친 판단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때 종교 집회가 한동안 금지된 적이 있는데, 이때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며 극심히 반발한 교회들이 있다. 이것 역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교회가 사회적으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잠시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은 일요일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형식이나 방법은 얼마든지 문화적 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다. 월요일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한 달 내내 월급날만 기다리고, 선배의 불호령에 화장실에 가서 남몰래 눈물도 흘리는 대한민국 대다수 직장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결혼 후 애까지 갖고나서 남들보다 좀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식을 치르기도 전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소위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까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름 경험을 했었지만 전도사 생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온갖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나는 병아리 목회자로 조금씩 변모해갔다. 목회자로서 갖춰야 하는 태도(파스처, Posture)를 익히면서 동시에 다양한 군상으로 이뤄진 성도들에게 반응하는 리액션(몸짓, 제스처, Gesture)도 익혀야만 했다. 초보 목회자 시절의 나는 때로 성도의 무리한 요구에도 무조건 맞춰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했고, 정신병적 질환과 극단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리액션을

태도와 행동과 습관과 운명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사고를 먼저 전환해야 한다.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러한 태도와 리액션이 항상,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즉, 선교라는 거대한 영역에서만 상황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상황화는 필요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벽산과 함께한 지도 6년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다. 그전까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졸업 후 해외 선교사로, 귀국 후 부목사로, 유학으로 다시 신학생으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근 20년을 살다가 회사에서 목회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제법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었다. 이전에는 약 85%의 크리스천과 15%의 처치고어(Churchgoer,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만남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85%의 겸손한 그러나 아직은 크리스천이 아닌 예배 참석자와 15%의 크리스천이 사역의 대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MZ세대의 젊은이가 대다수고 그중 내 아들딸보다 어린 직원들도 있으니 세대차는 숨쉬는 것만큼 당연하다. 관심사가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유머 코드가 다르다. 상황이 이러하니 당연히 설교 주제와 전달 방법과 지향점이 이전에 익숙하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없다. 그런데 내가 벽산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접촉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나 삶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의 기본적인 파스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의 최우선 제스처는 벽산 직원의 영혼을 터치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황화를 잘하는 만큼 회사를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당연히 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상황화는 이 시대의 주제로 말하면 전환에 다름 아니다. 4차 산업혁명, AI 혁명, 디지털 혁명 등 온갖 격변이 난무하고, M세대와 Z세대 사이에도 세대차가 있다고 할 만큼 급변하는 이대에 정신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언가에 휩쓸려갈 수 있다. 시가 지금 우리 회사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AI에 익숙한 존재가 될지 말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회사의 신규 사업 영역을 제조나 건축자재 같은 카테고리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까지도 포함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까지 학습하고 도전해볼지를 심사숙고 해보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Attitude(태도)가 Behavior(행동)를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Custom(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국 Destiny(운명)를 결정짓는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태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태도와 행동과 습관과 운명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사고를 먼저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그의 Destiny가 달라질 수 없다. 회사의 집단 사고가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Distination(목적지)이 달라질 수 없다.

물론 이 시대의 다양한 전환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다. 벽산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어 세상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생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다. 이 거룩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서포터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각각의 개인과 가정과 회사를 든든히 지켜달라고, 힘을 달라고 요청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상황화의 달인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최고의 적응과 적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온 것만큼 엄청난 상황화가 어디 또 있겠는가?) 상황화든 전환이든 적어도 회피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무작정 달려들지도 말자.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오만하지도 말자. 함께, 신중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도움을 구하며 해보자.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계시다.



#일자리 으뜸기업

벽산,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종합건축자재기업 벽산(대표 김성식)이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이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무기단열재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 증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벽산은 최근 2년간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배려에 대한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신규 채용자 중 56%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 노동자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IT 지원, 홍보 및 총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개발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능력 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시스템을 반영하고, 신규 ERP와 HR솔루션,

RPA 등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이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벽산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인재 양성과 업무 혁신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되어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는 청년 및 여성 근로자 채용 확대와 직무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 채용, 일과 생활 균형 실천 등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100대 기업은 대통령 인증패 수여와 더불어 금융 및 세무조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홍보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화성 기술연구소



벽산, 기술연구소 확대 이전 및 현판식 개최

종합건축자재기업 벽산(대표 김성식)은 2023년 12월 18일, 경기도 화성에서 기술연구소를 준공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벽산은 그동안 전북 익산에 소재하던 기술연구소를 경기도 화성으로 확대 이전하는 한편 우수 연구 인력을 총원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화성에 독립된 연구동을 구축한 벽산 기술연구소는 올해 연구 조직 확대 및 인력을 총원하면서 벽산 주력 제품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극대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벽산 기술연구소는 원료 및 조성 등 원천기술에 관한 연구부터 기존 제품의 물성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 등 건자재 및 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 및 기준 변화에 대응하며 정부 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제철 벽산 기술연구소장은 "최근 모든 산업에 걸쳐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시장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벽산 기술연구소의 확대 이전을 시작으로 사람, 안전, 환경을 중심으로 R&R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연구체제와 조직문화를 형성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역량강화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벽산 기술연구소의 새로운 시작은 변화의 시기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지속 성장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 건축자재 연구와 소재연구 분야에 대한 지속적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상 수상



벽산,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은상 수상

종합건축자재기업 벽산(대표 김성식)은 2023년 11월 22일, COEX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전국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개인, 단체,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품질분임조 등 총 5개 영역에 대해 시상했으며, 벽산은 전국분임조경진대회 설비(TPM) 부문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품질분임조는 산업현장에서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한 기업 품질혁신 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벽산 익산공장의 화합분임조는 '스마트한 그라스울

TPM 활동으로 설비종합효율 향상'이라는 주제로 설비가동률, 성능가동률, 양품률 등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벽산은 최근 대외적으로 스마트한 업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 생산 현장에서 품질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이번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좋은 결실을 본 것 같다"라며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지난 1975년부터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당해년도 품질혁신 활동 관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기업을 표창해왔다.

Haatz

1

하츠, 경기도 평택서 유통 딜러 간담회 개최

(주)하츠(대표 김성식)는 6월 1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하츠 공장에서 유통 딜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하츠의 유통 네트워크 확장과 제품 개발 방향성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서울뿐 아니라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우수 딜러들이 참여해 생산 현장 및 쇼룸은 물론 AQM Lab까지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츠의 제품 기술력과 생산력을 포함해 하츠 존과 같은 제·상품 라인업 확장 기대 가능성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하츠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



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하며, “유통 네트워크 확장과 제품 개발 방향성 및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하츠 바스’,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 욕실인테리어 부문 대상

프리미엄 주방 가전 선도 기업 (주)하츠(대표 김성식)의 욕실 인테리어 브랜드 ‘하츠 바스(HAATZ BATH)’가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욕실인테리어 부문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아일보와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하츠 바스’를 대표해 수상자로 나선 (주)하츠 영업본부장 진용균 전무는 “하츠의 30년 주방가전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 퀄리티 욕실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브랜드로 ‘하츠 바스’를 이끌어 나가며 입지를 더욱 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신규 욕실 제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대중성을 겨냥한 엔트리 라인을 강화하고 고객 저변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츠 바스’는 주방 가전 선도기업 (주)하츠가 욕실 인테리어 브랜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론칭한 욕실 전문 브랜드로,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주)하츠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주방 가전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완성된 고품질의 욕실 제품을 합리적인 가

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츠 바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편의성을 고려한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세면 수전, 욕조 수전, 선반형 레인 샤워기, 욕실 액세서리, 욕실용 환풍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것이 큰 특징이다.

‘하츠 바스’는 2023년 8월 론칭한 이후 현재까지 대리점 30개를 달성하는 눈에 띄는 성과까지 거두며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소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탭볼 세면기, 탭볼 수전, 자동 물 내림 센서, 선반형 수전, 욕실장, 비데 일체형 양변기 등 고객의 요구를 수렴한 다양한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다.



B Network

벽산 네트워크 대표전화 1588-1116



서울본사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10F, 14F	02-2260-6114
중부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131	031-528-0554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15번길 10	042-628-0823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55번길 19	062-523-0063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91	053-565-0550
부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63	055-367-7880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24	032-578-2622
전북영업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355	063-214-3493
마산영업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126 석호빌딩 404호	055-299-5397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서동로 675	063-830-8800
음성공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초금로71번길 144	043-877-2916
영동공장	충북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500-42	043-742-0704
홍성공장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산단로 388번길 100	041-406-8007
여주공장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경충대로 1418	031-882-3434

하츠 네트워크 대표전화 1644-0806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한석타워 10-12F	1644-0806
평택공장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02	031-370-7500
부산사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령대로 146 (혜원빌딩 5F)	051-505-4551
대구사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장동로 86 대성빌딩 11F	053-741-4102
호남사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7F	062-941-6071
충청사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13번길 23-24 승암빌딩 2F	042-488-8033

벽산페인트 네트워크 대표전화 1588-036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904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02-6958-3910
수도권 영업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905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02-6958-3950
중부권 영업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15번길 10(와동)	042-636-7706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55번길 19(용봉동)	062-512-0086
남부권 영업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108동 2층 209호(대저2동)	051-975-0052
외주관리팀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20-27(어곡동)	055-785-5702
기술팀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20-27(어곡동)	055-785-5711

공간에
ZERO
를 더한다

대한민국 대표 건축자재 브랜드